환경교육

고지대경관거점해설 -정릉지구 (대성문 경관 해설판)

활동장소	북한산대성문 경관 해설판
소요시간	30분
참가대상	일반인
참가인원	10명/해설사1명
작 성 자	자연환경해설사

활동목표	• 북한산국립공원 주요 봉우리(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경관을 보며 아름다운 북한산 절경을 느껴본다
준비물	• 해설판
유의사항	• 북한산에 있는 문화재를 소중히 하고 훼손하지 않는다. •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한다.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 **인사** –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 북한산에 오게 된 과정 듣기 – 안전교육(등산 시 지켜야할 수칙 공유)	5분
전개 (활동)	• **북한산성 이야기** – 북한산성 축조 이야기(역사) – 북한산성 소개 – 북한산성 보국문 이야기 • **북한산 경관 해설판에서 듣는 북한산 봉우리** – 북한산 봉우리 이야기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 북한산 대성문 이야기	2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 마무리 인사	5분

시나리오	인사

올라오는 동안 경치는 감상하셨나요? 올라오는 길에 멀리 의정부와 도봉산 경치는 감상하셨는지, 아니면 길가에 핀 작은 꽃에 눈길은 주신 적 있으신지요. 목표를 세우고 그 곳을 향해 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피는 여유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 힘드셨을 여러분의 숨 돌리는 시간, 혹은 주변을 살피는 여유의 시간을 보다 값지게 해드리고자 이곳에 왔는데요. 산행 길에 처음 마주친 성곽인 만큼 이 북한산성 성곽, 그리고 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산성 이야기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 병자호란을 겪고 난 뒤 조정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국난이 또 일어나면 어디로 피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크게 고심하였습니다. 국난을 당할 때마다 도성을 한 번도 방위하지 못한 조정에서는 그동안 믿었던 강화도와 남한산성도 위급할 때에는 신속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아래 도성과 가까운 곳으로 물색한 곳이 바로 북한산이었습니다. 북한산에 산성을 쌓고자 하는 시도는 임진왜란 당시인 조선 선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반 논쟁이 워낙 극심하여 산성을 쌓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논쟁은 숙종 때까지 약 12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이유는 산성을 쌓으려면 재력이 많이 필요하고 또한 백성들을 동원시켜야 하는데 이 모두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축성을 찬성하던 대신들의 의견은 “북한산은 사방이 험난한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키기가 좋을뿐더러 도성과 가까워 물자를 갖고 피난하기도 편하다. 일찍이 거란의 침략을 당했을 때 고려 효종이 피난했던 안전한 땅이므로 축성에 적합하다.”라는 얘기였고, 반대 의견은 “종묘사직이 있는 도성을 끝까지 지켜야지 도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굶주리는 백성들이 많아 원성이 자자한 이때 백성들을 동원하여 산성을 쌓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장구한 세월동안의 축성논의는 마침내 숙종 36년(1710) 12월 결론을 보게 되었습니다.

숙종은 “북한산은 도성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비록 양식과 자재를 따로 조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성의 비축물을 모두 옮길 수 있을 것이니 이는 끝내 버릴 수 없는 땅이다”하며 다시 대신들을 북한산에 보내 정밀조사를 시켰습니다. 대신들의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받은 숙종은 “성을 쌓는 역사는 석재를 뜨는 일이 가장 어려운데 북한산은 석재가 모두 그 땅에 있으니 공역이 줄어 편할 것이다. 마땅히 이렇게 평온할 때에 속히 성취시켜야 하니 일을 지연시킬 수 없다”하며 축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자 이 성벽을 보시면 모두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 북한산의 주요 암반지질 역시 화강암입니다. 북한산은 착공 6개월 만에 그 석성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그 이유 역시 북한산을 지탱하고 있는 이 화강암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북한산 등반 시에는, 구멍이 뚫린, 혹은 잘려나간 큰 화강암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모두 조상들의 축성의 지가 남겨진 의미 있는 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성곽을 보시면 다양한 크기의 돌을 짜 맞춘 듯이 쌓아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 사이에 잔돌을 끼우지 않고, 표면을 가공해 빈틈없이 맞물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북한산성은 한층 높아졌으며, 방어시설은 한층 견고해져, 이전시대와는 다른 축성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성곽은 총 4.3km로 조선의 삼군문인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에서 각 부분을 도맡아 축성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보국문은 금위영에서 맡은 부분인데요. 금위영은 용암봉부터 보현봉까지의 성곽 축조를 맡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대성문에 그 축성주체와 책임자 명단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금영은 금위영에서 주관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감조패장은 금위영에 소속된 공사 책임자를 나타내며, 석수편수는 축성기술자인 공장들의 우두머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름까지 새겨놓았으니 궁금하신 분은 직접 가서 봐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북한산성은 지형에 따라 성벽 높이를 달리 했습니다. 비교적 낮은 지역과 방어 요충지대에는 성벽을 높이 쌓았고, 이는 성벽의 몸이라 하여 체성이라 불렀습니다. 지세가 높고 험준한 곳은 성벽을 낮췄고, 높은 능선에는 방어용 담인 성가퀴 다른 말로는 여장만 쌓았습니다.

또, 성벽의 중간 중간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지은 부분은 치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적의 접근을 빨리 관측하고, 접근한 적을 측면에서 격퇴시킬 수 있도록 성벽의 일부를 돌출시키거나 곡선으로 쌓은 구조물로, 몸을 잘 숨기는 꿩을 비유하여 꿩치(雉) 자를 썼다고 합니다. 이처럼 북한산성은 북한산성의 지세와 지형을 활용한 지혜의 산물이며 당대의 기술력과 과학지식이 이룬 조선시대 토목공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산성 보국문

자 이렇게 지어진 성벽에는 총 16개의 문을 설치했는데, 성곽 4방과 중성지역에 주요 출입구를 설치하고, 그 사이에 비상시 사용하는 암문을 두고, 산성 내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수문도 설치하였습니다. 자 그럼 16개의 문 중 우리 앞에 있는 이 보국문을 보시겠습니다. 뭔가 초라한 모습으로 주 출입구라 보기엔 썰렁한 느낌이죠? 이곳은 비상시 사용하는 암문입니다.

청수동암문, 가사당암문 용암문처럼요. 비상시 사용하는 문에는 암문이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이곳은 암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안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국문은 본래 축조 후 동쪽에 있는 암문이라 하여 동암문이라 불리었으나, 그 아래 보국사를 창건한 이후 지금까지 보국문으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성벽 설명 드릴 때 용암봉부터 보현봉까지 금위영에서 축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쪽 문 안쪽에 새겨진 명문을 보시면 금영이라고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문과, 주요출입문의 차이는 그 명칭 외에도 따로 있는데요. 바로 누각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입니다. 누각에서 누란 멀리 넓게 볼 수 있도록 다락구조로 높게 지어진 것이며 경복궁 경회루와 삼척 죽서루가 있죠. 또 각이란 석축이나 단상에 격식 있게 높게 지은 건물을 뜻합니다. 혹시나 대성문, 대동문, 중성문을 보신 적이 있다면 문 위에 이러한 누각이 존재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는 한양 방어의 임무를 다 하기 위해 멀리 넓게 보기 위한 누가 필요했고, 주요출입구로 임금이 지나다니기에, 격식 있게 높이 지은 각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암문은 말 그대로 비상시 사용하는 문이기에, 이러한 누각이 필요 없었고, 그 문의 존재도 적들에겐 비밀이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라한 이 문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 문을 사용코자 했던 용도와, 우리가 이렇게 자주 찾는 코스에서 첫 번째로 우리를 맞이하는 성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보국문은 그저 초라한 문뿐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산성의 성곽, 그리고 보국문, 그리고 누각까지 말씀드렸는데요.

300년 전엔 수도 방어의 요충지로서, 현재에는 대표 산성으로서 사적 162호의 국가지정문화재가 된 북한산성! 그 성벽부터 우리 앞에 있는 비밀문인 이 보국문까지, 아직까지 우리를 지켜주고자 이곳에 서 있는 북한산성은 수도방어의 의지를 현재의 우리에게까지 다시금 일깨워 주는 조상과 후손의 소통공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문을 지날 때, 이 성벽을 거닐 때 다시금 이러한 생각을 하고,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가 이 성벽을 지켜주자 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산 경관 해설판에서 듣는 북한산 봉우리

정상부의 세 봉우리가 남북으로 빚어 내린 북한산의 비봉능선과 산성주능선, 도봉산의 포대능선과 사패능선에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비바람에 의해 기묘하게 형성된 크고 작은 암봉, 암벽, 암석들이 저마다의 특색을 자랑하고 있어 산행의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산을 대표할만한 곳을 꼽자면 역시 백운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보이시나 백운대는 흰 구름을 허리에 두르고 솟은 바위라는 데서 유래하였고, 백운대에 오르면 서울시내와 근교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도봉산, 북악산, 남산, 관악산은 물론, 맑은 날에는 강화도, 영종도 등 황해의 섬도 보입니다. 인수봉은 암벽등반 코스로 암벽 등반 인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봉우리 북쪽에 튀어나온 바위가 마치 아이를 업은 모양 같다고 하여 이를 한자명으로 표기하여 부아악(負兒岳)이라고도 합니다. 고구려 동명왕의 왕자인 온조와 비류가 남쪽으로 내려와 자리 잡고 살 만한 땅을 고를 때 이 봉우리에 올라 서울의 지세를 살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운대의 남쪽에 있는 만경대는 주변 경관이 좋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예로부터 국망봉이라 불렸는데요. 무학이 나라의 도읍지를 정할 때 여기에 올라서 내려다보고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악장가사]에 북한산을 삼각산이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진산인 북한산을 최근에 이르기까지 삼각산으로 불러오고 있지요. [신동국여지승람]과 [북한지]에 따르면 삼각산은 만경, 백운, 인수 세 봉우리가 우뚝 솟아 세 개의 뿔과 같이 생겨 붙여진 이름입니다.

북한산이라는 명칭은 조선 후기 북한산성이 축성되고 그 내용을 기록한 [북한지]가 출간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산 이름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많은 문화재의 소재지 이름과 국립공원의 이름으로 '북한산'이 사용되어 현재에는 삼각산을 대신하여 북한산이 공식 이름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만경대(799.5), 노적봉(716), 보현봉(714), 문수봉(727), 비봉(560), 형제봉(467), 원효봉(505), 의상봉(502)등 이름난 봉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산성 대성문

북한산성 성문에는 대동문, 대서문, 대남문, 과 같이 지리 방향적 성문 명칭을 활용한 성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성문 만큼은 지리 방향적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성곽 현판을 보시면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방향적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보게 되면

전쟁이나 유사시 임금이 통행하는 문으로 이 성문을 이용할 것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산성의 성문 중에서 대성문은 그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른 형태 의 명칭을 사용하여 이름에서 특별함을 강조 했던 것입니다.

또한 북한산성의 대부분의 성문들은 입구가 홍예식으로 된 성문입니다. 홍예식이라 함은 성문입구 부분이 무지개형식의 아치형을 띄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성문들은 홍예식의 성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신다면 이 북한산성을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북한산성은 수도인 한양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왕이 위급할 때 피난하는 행궁을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축성 당시 북한산성의 규모는 16개의 성문과 수문이 있었고, 임금이 머물 수 있는 행궁과 승병을 위한 13개의 사찰과 암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로 축성 300년이 넘는 우리나라 대표 산성인 북한산성..!!

북한산성은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삼각산'이라는 명승지를 품고 300년 넘게 수도 서울과 함께해 온 그리고 국가 존폐의 위험을 안고 이룩한 숙종의 북벌정복의 꿈이 깃든 우수한 문화자원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 모두가 보존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적이란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